

## 추도사

수산당 지종 대종사님!

구순의 세수에도 새벽예불과  
좌선을 거르지 않으시고, 방선  
중에는 소일과 운동으로 강건한  
모습을 잃지 않으셨는데 오늘  
이렇게 세연을 접으시니 황망한  
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.

약관이 채 되기도 전에 부모의  
겁삼년상을 치르며 인생의 무상함을  
느끼고 ‘다시 태어나는 일은

**이생에서 끝내자’는 결심으로 이곳  
백양사로 출가하신지 70 여년,  
오늘 ‘환을 여의고 본가로 돌아가  
노라’ 하시니 평생 찾으셨던 무위진인  
(無位眞人)의 그 자리를 찾아 가십니까?**

**간파(看破)하는 나는 누구냐고  
물으시며 ‘염라의 심판을 안 받으  
려면 최상승의 관문을 똑바로  
뚫으라.’고 경책하시던 그 사자후를  
이제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?  
방장스님!**

스님께서서는 과거 상좌조차 두기 힘든 궁벽한 절 살림에 위패상좌라는 이름으로 불공과 공부를 겸해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입적한 은사의 자리를 만암스님께서 채워주셨으니 근대의 대선승 회상에 그 가르침을 이으셨습니다. 이후 여러 스님의 회상에서 화두를 놓지 않고 실참 정진을 계속하셨습니다.

마침내 화두를 놓을래야 놓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수중에 해와 달이 들어오고(袖中日月) 하늘과 땅을

**움켜쥐게 되니(掌握乾坤) 마침내 소소영영  
(昭昭靈靈)한 참된 주인공의 명명백백  
(明明白白)한 모습과 마주하게 되셨  
습니다. 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 
잠을 자거나 화두 속에서 살라고  
하셨던 만암스님의 가르침을 평생  
지키셨던 것입니다.**

**그리고 후학들에게는 자기집착에  
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‘참사람’을  
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 
말라고 하셨습니다. 이것은 또한  
이곳 고불총림의 큰 어른이신 서옹**

스님께서 주창하신 ‘참사람’의 가르침을 놓지 않으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. 스님께서는 ‘무애자재한 무위진인은 하루 아침에 되기 어렵다 해도 그 무위진인이 되려는 노력은 지금 할 수 있으니 참사람을 찾고, 주인공을 찾는 노력을 쉬지 말라’고 강조하셨습니다. 이렇게 스님께서는 스스로의 견처를 내보이지 않으신 채 언제나 하심하셨습니다.

끊임없는 실참 수행 가운데서도 가람수호와 대중교화에도 남다른

**원력을 펼치셨으니, 불교 포교의 불모지라고 하였던 곳들이 스님의 원력에 의해 그 모습을 새롭게 하였고, 특히 백제불교 초전성지인 영광 법성포와 불갑사가 오늘의 모습으로 성역화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.**

**이 또한 가람수호와 대중교화에도 진력하여야만 불조의 은혜를 갚고 시은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라는 만암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것입니다.**

**그리고 반선반농(半禪半農) 선농일치  
(禪農一致)의 가풍을 이어 언제나 크고  
작은 수고의 울력을 마다하지 않으  
셨습니다.**

**수산스님!**

**어느 해인가 안거 해제를 앞두고  
‘내가 내 임무를 다 마쳐야 해제  
라고 할 수 있다.’고 하시며 생사를  
초탈한 경지에 들어가야 바로  
해제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기 위해  
노력하는 것이 참사람이 되고자  
하는 삶이며 제 정신으로 사는 삶**

**이라고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.**

**이제 그 임무를 마치셨습니까?  
공겁 밖에서 저희를 보며 크게  
웃고 계십니까?**

**차별 없는 참 사람이 하나 있어(無位真人)  
항시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고(面門出入)  
하였으니, 이제 그 참사람의 면목을  
다시 내보여 주소서.**

**불기2556년 3월 11일  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**